

# 초조대장경 한일복원위 발족

### 초조대장경 2000여 권 복원 목표... 7월까지 복원간행도감 구성



6월 7일 발족한 고려초조대장경 한·일 공동복원위원회 위원 및 고문들.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1011년) 1000년을 맞아 한·일 공동 복원간행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대장경 연구 인력이 결집·구성된 복원간행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소설됐던 초조대장경을 복원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와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6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이하 복원간행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2월 고려대장경연구소·동화사·대구시가 초조대장경 천년기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 체결 후 후속조치다.

이날 복원간행위는 위원장 종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아베 코산 일본 하나조노대 학장, 루이스 캄카스터 미국 UC버클리대 명예교수,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 이진무 문화재청장,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1명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복원간행위는 고려대장경연구소 문광부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6년 간 디지털 전산화한 국내 인경본 212권과 일본 남산사 소장 인경본 1825권 등 초조대장경 2000여 권을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행위원회는 조계종 불학연구

소장 원철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종묵 스님, 일본 교토 남산사 주무총장 고노 노리코 스님,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등 29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초조대장경 복원에 전문과 전문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복원간행위는 7월까지 복원간행도감(복원사업단)을 꾸리는 한편, 올해 안에 디지털 이미지 출력을 위한 가공에 착수하고, 초조본 중이와 가장 유사한 한·일 인쇄 방식을 선정키로 했다. 편자본 제본에 대장경 보관용 함도 별도 제작해 올해내에 샘플본 100~160권이 제작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복원으로 한국사회 변혁 계기 되길”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장 종림 스님

“초조대장경 복원을 통해 1000년 전 조성된 초조대장경의 새로운 1000년을 여는 새 장을 열겠습니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된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사진)은 6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발족식 후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으로 고려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청주 부근에서 연등회를 개최하면서 조성을 발원해 1011년 조성됐다”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서만이 아닌 불교학의 토대와 인쇄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대작본사이다”라고 말했다.

종림 스님은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정치·경제적인 힘이 지배해왔다. 이제는 초조대장경 등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사상적·종교적인 힘을 사회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초조대장경 복원이 한국사회 동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일 공동복원간행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스님은 “그동안 (소장자들이) 초

조대장경을 정보가 아닌 보물로 간직하려고만 해 공개를 꺼려왔다”면서 “초조대장경을 가장 많이 소장한 일본부터 설득하기로 하고 남산사가 소속된 일본 임제종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회고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교토 남산사를 설득하는 데는 임제종과 유관한 일본 하나조노대에 유학했던 한국 스님 및 연구자가 많은 도움을 줬다.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이끌어 온 종림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계보가 궁극해서 대장경 연구에 일생을 매진해 왔다.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목판으로, 일본 신수대장경은 활자본으로 각각의 역할을 다해왔다. 초조대장경 복원과 함께 전산화는 목판과 활자본에 각각 독보적 기술을 갖춘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100자 뉴스

### 벽운사 낙태 부모 수기전 16일 봉행

낙태로 피어나지 못한 태아영가를 위로하는 행사가 봉행된다. 조계종 건봉사 서울포교당 벽운사(주지 지산)는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낙태한 부모들의 참회 수기전을 개최한다. 주지 지산 스님은 “여러 사정으로 부모·자식간의 인연을 떨쳐버려 회한의 삶을 사는 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품안을 떠난 태아영가의 크락양생을 기원코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979-0108 조동섭 기자

### 조계종 포교원 17일 포교정책연찬회 개최

신도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6월 17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에서 ‘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39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발제자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과 김성동 교육원 팀장, 박희승 전통불교문화원 총괄부장, 서재영 불광연구소 연구원, 이상봉 기획실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신도 교육 연수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등을 조망할 예정이다. (02)2011-1911 조동섭 기자

### 천태종 임종간호 봉사자 위한 세미나 개최

천태종 수인불교임종봉사회(회장 전옥자)는 6월 10일 서울 관문사 대강의실에서 (가칭)천태임종간호 봉사단을 위한 세미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천태종 임종간호 봉사교육 세미나는 서울 관문사에서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간 동안 11회에 걸쳐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호스피스 개념을 시작으로 임종간호, 호스피스의 마음가짐, 아름다운 죽음과 행복한 노년, 임종환자의 행복 찾기, 불교와 호 문화, 탄생과 자연, 죽음 준비와 삶의 가치, 수시와 실습, 장례문화, 장례식장 꾸미기 등이 진행된다. (02)446-1793, www.suin.or.kr 조동섭 기자

### 아름다운동행 구직자 위한 행복템플스테이

구직자를 위한 ‘행복템플스테이’가 7월 5~8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아름다운동행에서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80명을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격은 처음 구직활동을 하거나 실직으로 인한 구직활동을 하는 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행사는 ‘내 안의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유명 강사와 스님 초청 강의가 진행되며 참다운 ‘나’ 발견하기, 자기계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어울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청마감은 6월 28일까지이며, 아름다운동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2)737-9595 이상연 기자

### 연우치과 개원 1주년 6월 특별진료 이벤트

날마다 좋은날 직영 연우치과(원장 정미화)가 개원 1주년을 맞아 6월 한달간 특별 진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별 진료는 엑스레이(X-ray)포함 무료 구강검진, 4회 치아미백 50% 할인, 스케일링 50% 할인 등이다. 또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를 6월 한달간 진행하며 선정 작품에는 치아미백권 1장, 스케일링권 5장의 상품이 주어진다. 연우치과는 발치한 본인의 치아를 빼 이식재로 처리해 사용하는 자가치아 뼈이식수술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다. 진료 수익금은 불교계 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연우아비뒀한 봉사활동 단체에 의료지원금으로 사용된다. (02)733-1030 이상연 기자

## “범패 다양성 복원·계승해야”

### 불교문화정보연구원 ‘불교문화 석학강좌’ 열려

“동북아 범패의 유래 등을 미뤄봐 현재 전승되지는 않지만 경상도식, 전라도식 범패 등의 존재는 명확합니다. 이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것은 불교음악을 하는 이들의 과제입니다.”

권오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6월 8일 서울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이 개최한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1 - 불교의 음악’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문에는 진감 선사가 804년 당에 갔다가 830년 귀국한 후, 쌍계사에서 범패를 가르친 것으로 나와있지만 <삼국유사>의 월명사 토술가조와 진감 선사와 동시대 사람인 일본 원인자과 대사가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범패의 기록이 나타난다”며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중국산동반도 등주 적산원에서는 당풍, 신라풍, 일본풍의 세 가지 범패가 있었다. 당시 신라풍 범패가 적산원에서 불렀다는 사실은 진감선사 이전 이미 경전을 향토풍(민요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강연에서 한중일 범패에서 나타나는 향토풍의 근원에 묻고 일부 부족 등에서 나타나는 알타이어족 특유의 억양 등이 있으며 이것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전파되며 경전독송이 향토풍에 어울린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실크로드 남로 중 하나인 현재 우전(于田)에 있던 호탄

(khotan)왕국은 불경 번역 작업이 활발했으며 여기에 주로 활동한 페르시아 계통의 소크트 족이 범패를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범패의 다양한 유래와 각 지역별 풍토에 맞는 범패의 존재여부에도 현재 이를 복원·발전하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권 교수는 “범패하면 영산재로만 대표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재 전승되지는 않는 다양한 범패의식을 복원·계승하는 것은 불교음악을 하는 이들의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은 불교문화 재해석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1일 설립됐으며, 이번 첫 대중강좌 프로그램인 ‘불교의 음악’을 통해 범패, 찬불가, 민속불교음악 등 6가지 주제에 걸쳐 관계 석학들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02)242-4288 노덕현 기자

## “불교는 종교 테두리 허물어”

### 달라이 라마, 대학신입생과 특별한 만남

달라이 라마가 올해 대학생이 된 티베트 젊은이들과 만났다. 6월 1, 2일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어린이 마을’(TCV, Tibetan Children's Village) 강당에 인도 전역의 대학에 올해 입학한 티베트 청년 3천여 명이 모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달라이 라마와의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다.

‘티베트 불교와 철학, 정신 그리고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07년 시작됐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불교로 이어지는 법의 흐름과 문화의 상호관계를 강연했다. 달라이 라마는 “현대의 불교는 이미 종교의 테두리를 허물었다. 특히 티베트불교는 전 세계인의 삶

속에 녹아들었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현재의 삶을 현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 젊은이들은 우리의 종교와 문화에 충분한 자부심을 지닐만하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티베트 젊은이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재 티베트불교의 한계로 제기되는 비구니 법계 문제와 티베트어의 세계화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달라이 라마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티베트 젊은이들은 티베트의 정신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 한번도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세요

###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대반야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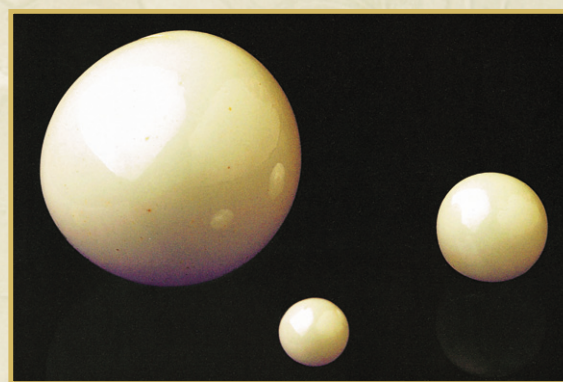
# 世尊眞身舍利

부다여! 부다여! 泥蓮河의 부활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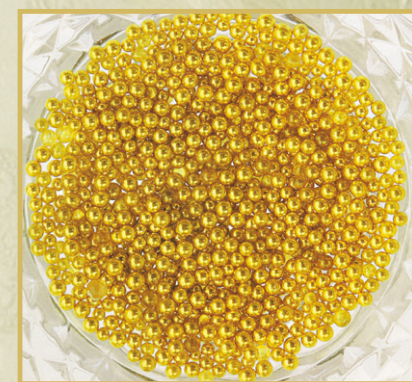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다양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면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증과된 사리

원래 한 개의 큰 사리에서 두 개의 사리가 증과된 신비스러운 부처님 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서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3. 한 권의 사리집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의 의식범회때에 법당에 모셔놓고 진행하시면 엄청난 가피(加被)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크기 : 300mm X 300mm • 면수 : 166면  
• 정가 : 280,000원 • 출간기념 특별할인가 : 200,000원 (6월 17일 - 6월 31일 까지)

發行人 : 社團法人 鳳庵大禧禪師 記念事業會  
구입 문의 : (053) 325-0400, (053) 325-5288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18-21-0972-990  
예금주: 김상훈